

#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의안 번호	159
----------	-----

제안년월일 : 92. 12. 23

제 출 자 : 산업위원장

## 1. 주 문

-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 쌀 수입 개방시 쌀 농사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을 우려 도의회 차원에서의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

## 2. 提案理由

-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농업의 주작목인 쌀을 수입 개방할시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심히 우려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가 절실

## 3. 참고사항

" 없음 "

## 쌀 輸入 開放 反對에 關한

# 決 議 文

祖上代代로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쌀 農事의 存立基盤이 國內外的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現在 急速히 進行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은 모든 農産物의 "例外 없는 關稅化"와 市場開放을 主張하고 있는 一部 農産物 輸出國들에게 一方的으로 有利하게 塔結되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으며, 또한 國內一角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市場 開放을 避할 수 없다는 自歎의 無策論이 간혹 흘러 들고 있어 실로 驚愕과 憂慮를 禁할수가 없습니다.

쌀은 食糧安保에 不可缺한 우리 國民의 主食임은 勿論 國土와 水資源의 保全, 環境 保全等 多樣한 公益的 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며 農村地域經濟를 主導하는 礎石이 되어 왔으며,

또한, 쌀은 農家의 主作目으로서 絶對 多數의 農家가 쌀농사로 生計를 維持하고 있으며, 農業生産面에서 우리 農業의 根幹이 된다는 事實은 다같이 共感을 하는바, 우리 忠北 道議會에서는 쌀을 비롯한 主要 農産物은 食糧安保와 地域의 均衡發展 次元에서 어떠한 境遇에도 開放對象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은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輸出國과 輸入國의 立場이 均衡있게 反映되고, 모든 나라의 農業發展 水準이 充分히 考慮 되어야 함을 強調하면서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安定的 食生活 保障, 國土資源의 合理的 利用과 保全 農家所得의 持續的 維持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國民文化情緒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境遇에도 市場開放의 對象이 될 수 없음을 分明히 申明한다.

둘째, 쌀을 輸入開放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農業生産基盤이 붕괴되고 農村이 破産될 것이 分明함으로 쌀의 國家的 重要性을 再認識하여 政府는 모든 外交 力量을 發揮하여 쌀을 開放對象에서 除外시켜줄 것을 強力히 促求한다.

셋째, 政府가 "쌀" 農事를 根幹으로 하는 우리 農業의 構造的 취약성을 早速히 克服할 수 있도록 農業의 競爭力을 向上시키고 活力있는 農村 建設을 爲한 劃期的인 對策 마련을 150萬 道民과 함께 要請하는 바이다.

넷째, 우리 忠淸北道議會 議員 모두는 農業과 農村 및 地域經濟의 發展을 爲해 最善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申明한다.

1992. 12. 24

忠淸北道議會 議員 一同